

육용종계 육추·육성관리

I. 닭을 균일하게 키우기 위한 관리

병아리가 균일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성성숙이 고르지 못하고 결국 높은 산란피크를 올리지 못한다.

개체간 체중차이가 심하면 사양관리에 일괄성을 잃게 하며 쇠약한 닭은 더욱 쇠약해진 반면 과비한 닭이 생기게 된다.

육추실 온도관리

○ 추운 육추실에서는 병아리가 삿갓 밑으로 몰리게 되어 물과 모이를 충분히 먹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1주령의 급온관리는 계군의 균일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삿갓 아래의 온도뿐 아니라 삿갓 외부 온도도 중요해 입추후 1주일은 바닥온도를 25°C 이상 유지해야 한다.

○ 겨울에는 병아리 도착 24시간전에 실내 급온을 실시하여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 온도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가능한 많은 환기를 시키고 샛바람이 없도록 유의한다.

○ 육추 첫주는 80% 습도를 유지하여 병아리가 탈수증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육추, 육성면적

○ 밀사는 닭의 생존경쟁을 유발하여 개체간 우열의 차이를 생기게 한다.

○ 육추, 육성사의 크기를 감안하여 무리한 수용계획은 하지 않도록 한다.

○ 육성계는 가급적 넓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8주령까지는 평당 36수, 그후 20주령까지는 평당 18수가 적합하며 환기시설에 따라 평당 수용수수를 늘릴 수 있다.

○ 육추배터리를 사용할 때 3주령까지는 90cm × 60

cm의 면적에 30수 이내로 수용하고, 3주 이후 24주 까지는 성계케이지에 수용계획대로 수용한다.

○어렸을 때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넓은 면적을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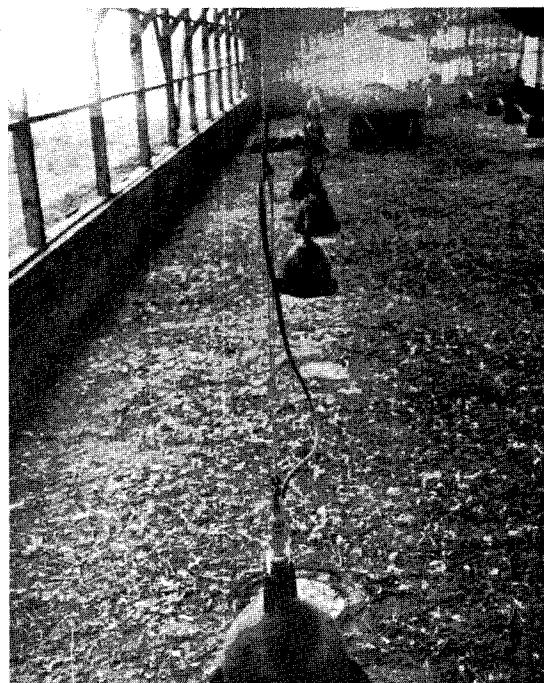
급이 · 급수기

○처음 육추 5일간은 평판급이기를 사용한다.

○제한급이 기간중에는 전체 계균이 일시에 먹을 수 있는 급이면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2주부터 24주령까지 둑근모이통(바닥직경 45 cm)은 1,000수당 65개가 필요하고, 체인휠더 사용시 1,000수당 75 cm의 길이가 필요하며 체인속도는 분당 18m 이상이어야 한다.

○급수기 숫자가 부족하면 우열의 차이를 초래한다. 닭이 3m 이상 걷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통을 고르게 놓는다.



○첫 2주간은 병아리 1,000수당 3.785 ℥ 물통 10개 가 필요하며, 긴물통을 사용할 때는 1,000수당 6m의 급수기가 필요하며 3주부터 24주까지는 1,000수당 12m 가 필요하다.

과습한 계사바닥

○계사바닥의 과습은 콕시듐증, 포도상구균증, 각종 소화기 질환을 발병시키며 계균의 균일도를 저하시킨다.

○물통에서 물이 넘치거나 닭이 음수시 흘리는 물, 과도한 음수로 연변, 환기 불충분 등은 계사바닥 과습의 원인이 된다.

○제한급이시에는 물을 과다하게 많이 먹으므로써 연변으로 인해 계사바닥이 과습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한급이시 제한급수도 필요하다.

• 격일제한급이시 사료섭취 한시간 이후부터 물을

주지 않고 사료를 주는 날은 4시간만 급수한다. 계사내 온도가 30°C 이상 지속될 때는 제한급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매일급이시 사료를 다 먹은 후 2시간까지 급수하고 그 이후에는 급수를 제한한다.

• 육성중 과도한 급수제한은 성성숙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제한급수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연변의 문제가 없는 한 급수제한은 필요없고 22주이후부터는 급수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제한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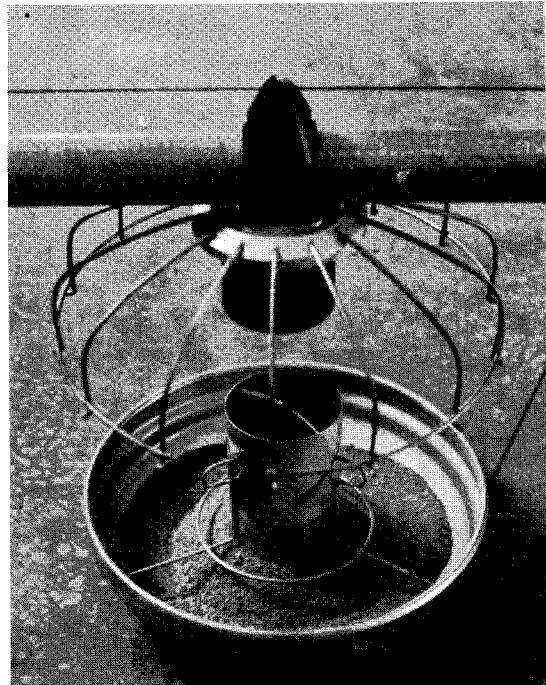
○ 사료의 제한급이는 그 자체가 체중의 우열차이를 생기게 하는 요인이다.

○ 평사에서의 매일 제한급여는 우열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며 모이통이 부족할 때 우열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격일급이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 케이지 육성에서는 사료효율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격일제한급이를 할 필요가 없다.

○ 처음 육추 2일간은 1일 23시간 점등하여 초생추가 물과 모이를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해 준다.

○ 육추실에 도착한 병아리는 즉시 더운 물을 주고 2시간 후에 첫모이를 주는 것이 좋다.



II. 제한급이를 위한 관리요령

육용종계가 과도하게 살찌게 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고 사료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밀사는 닭의 생존경쟁을 유발하여

개체간 우열의 차이를 생기게 한다

육추·육성사의 크기를 감안하여

무리한 수용계획을 하지 않도록 한다

체중조절

○초기(0~6주령) : 계군의 균일성장을 돋우고, 골격 발육을 충분히 시키기 위해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시킨다.

○중기(7~15주령) : 체내 지방축적을 방지하고, 육성말기의 성장여력을 남겨두기 위하여 성장을 최소한 제어한다.

12주령까지는 주간중체 90g 정도의 완만한 성장을 그후 15주령까지는 주간중체 70g 정도의 매우 완만한 성장을 시킨다.

○말기(16~22주령) : 주간중체 115g 정도의 빠른 성장을 시킨다.

성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과도한 사료제한을 시키면 성성숙 지연으로 초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시킨다.

제한급이 방법

○15주령부터 사료를 조금씩 부족하게 사료제한을 급여한다.

○육추, 육성용 배터리나 케이지에 육성되는 닭은 매일제한급이가 효과적이다. 평사에서는 균일성장을 위하여 6주부터 격일급이법을 채택한다.

○격일제한급이법은 2일분의 사료를 하루 걸러 공급하는 방법으로 격일급이시 닭이 쇠약하고 폐사가 증가하면 매일급이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계사이동 후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는 3~4일간 계속 급여할 필요가 있다. 격일제한급이 육성계는 22주령말 이전에 매일 급이로 바꾸어야 한다.

체중측정

○3주말의 체중측정으로 앞으로 급여할 사료량을 결정한다.

○20주령까지 격주로 측정하며 사료변경, 계사이동, 초산시기에는 매주 측정한다.

○격일제한급이시 사료를 주지 않은 날 정오경에 체중을 측정하고, 사료준날 오후에 측정할 때는 급여사료량의 80%를 실제 측정치에서 뺀다.

○매일급이시에는 저녁 늦게 체중을 측정하며 항상 같은 시간에 측정한다.

○평사에서는 칸막이로 먼저 닭을 모은 다음 너무 큰 닭이나 작은 닭만을 측정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택해야 한다.

○한 계군에서 50~100수를 한마리씩 체중을 측정한다. 개체체중 측정은 계군의 균일도까지 알아볼 수 있다.

○평균체중에서 $\pm 10\%$ 범위내의 닭이 80% 이상이면 계군의 균일도는 양호한 편이다.

III. 종계이동 요령

○이동 4시간 전부터 절식시키고 물을 준다.

○기온에 따라 이동시간을 선택한다. 새벽이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낮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다.

○이동에 이용되는 기구는 잘 소독한다.

○계사이동 후 체중감소가 생기면 3~4일간 사료를 매일 준다.

○이동 3일전쯤 내부기생충을 먹이면 좋고, 새로운 계사로 이동한 날은 압사방지에 특별히 유의한다.

○계사이동 후 계군의 불안정, 기온 급강하, 갑자기 놀라게 하면 육성계가 한곳으로 몰려 질식, 압사하기 쉽다. 